

온두라스에서 온 사랑의 편지

2015 년 12 월

사라



11 월 중순 방학이 시작되어 바로 수술을하기로 계획했던 사라의 무릎수술이 12 월 4 일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잘 끝났습니다. 매주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에 쓰일 드릴이 소독되지 않은 상태를 수술 당일 발견하고 두 번째는 수술실까지 들어갔다가 위장약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다시 못하고 퇴원하고 그 후 대도시에 나가 알러지 검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4 일 드디어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시작까지 확인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더군요. 다행히 자가 발전기로 수술을 마쳤지만 기구들 중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겨우 겨우 잘 끝났다고 웃는 얼굴로 의사들이 말하더군요. 이젠 병원에서 저희 식구들을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사라 수술을 궁금해 할 정도로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환자 보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전도하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곳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약 6 주간 휴식이 필요하고 그 후 조금씩 걸을 수 있고 6 개월 후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 사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DIYNOS: Dios y Nosotros 하나님과 우리들)는 기독교인 부부가 세웠습니다. 하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아(땅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도주한 뒤 오랫동안 학교를 돌보지 못해 점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몇몇 선생님들이 그만두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제 마음에 아이들을 향한 부담감이 있었고 미국에 있는 부부에게 이야기 하여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이란 과목을 2월부터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과목인데 이벤트적으로 성경적 성교육, 가정관, 성품, 리더십에 대한 것들도 나누려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00 여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아이들과 저의 삶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1. 사라의 회복을 위해
2. 학교 사역을 위해: 방학 동안 수업준비가 잘 되도록

온두라스에서 권혜영 드림